

익산시장, 심야시간대에 악취원인 추적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주요 민원발생지 주변 순찰하며 악취발생 상황 직접 확인 야간 점검에서 담당직원 · 시민들 모니터링요원 10명 등 악취 포집해 분석 의뢰

정현을 익산시장이 최근 악취 민원이 도마위에 오르자 심야시간대에 악취 원인 추척에 나섰다. 25일, 정 시장은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심야시간대에 악취 특별기동반과 함께 민관합동 점검에 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 제·2산단과 신재생지원센터 및 인근 거주지 남부권의 음식물처리장, 공공하수·폐수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주요 민원발생지 주변을 순찰하며 악취발생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야간 점검에서는 정 시장을 필두로 녹색환경과장과 악취해소 담당 직원,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악취 모니터링요원 10명 등이 함께 악취발생 공정을 확인했으며, 5M 이상의 사업장 배출구에서 악취를 포집해 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정 시장은 이러한 현장 행보

에 뒤이어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악취 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앞으로 특별기동반에 부시장과 실·국장, 과장, 계장, 환경 관련부서 직원 등으로 근무 조를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악취 민원 접수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악취원인을 추적하고, 체감악취가 높을 경우 악취포집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익산시는 하절기 폭염시기 악취 집중관리 계획에 따라 7월 25일부터 악취잡기 특별기동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폭염해소시까지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은 현재 악취방지법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악취 저감의 핵심 키워드는 단속 및 시설개선"이라고 강조하며 "하절기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끈질긴 점검과 행정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반드시 악취 저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읍면동 재난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군산시는 25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7개 읍·면·동 재난업무 담당계장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대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재난업무 담당자는 지역의 재난 상황 파악 및 현장 신속대처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해 풍수해 행동매뉴얼 및 자연재난 비상단계별 읍면동 근무요령, 시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박인수 건설교통국장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8~9월을 대비해 재난취약지역 및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순찰을 강화하기 바란다"며 "침수 및 붕괴 등 피해상황 접수 시 관련부서와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조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8월 중에 시 협업부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대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진 및 태풍 발생시 행동요령 등 다양한 재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김임준 군산시장은 25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문화재 관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군산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김임준 군산시장, 문화재청 방문 예산 확보 노력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보수 지원 등 필요성 설명 국가예산에 반영 요청

김임준 군산시장은 25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문화재 관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군산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강 시장은 문화재청 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보수 지원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2019년 국가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의 문화재를 문화관광자원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문화재 관련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의 선유도 망주봉 일원은 지난 6월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된 바 있으며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 보존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최초로 도입된 면(面)단위 등록문화재인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내함과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등 4개소가 문화재로 등록예고 됐다. 또 옛 군산세관 본관은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예고돼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관내 가로수 · 수목 폭염피해 예방에 구슬땀

군산시는 재해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녹지 및 가로수에 식재된 수목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물주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관내 느티나무를 비롯한 4만 5천주의 가로수와 도시숲 조성자에 식재되어 있는 여름꽃 8만여 본 등을 대상으로 물주기 작업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물주기 작업이 어려운 수송로, 의료원로, 조종로, 비응도 등의 주요 도로변 5개 노선의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대상으로 물주머니 600여개를 설치해 폭염 및 가뭄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으로 각종 병·해충에 의한 나무 피

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방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연일 폭염으로 극심한 갈증을 겪고 있는 가로수와 꽃들을 대상으로 물주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숲, 푸른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가 오는 31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수험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연다.

전북사회복지행정연구회 통합사례관리 실천사례집 발간

전국 최초 최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 사례관리사들이 발간

전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 조직인 전북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채수훈, 이하 전사연)이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사회복지대상자와 행복을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실천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전국 최초로 최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사례관리사들이 발간한 책으로 사례관리 교육 교재로 전국 각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사연은 작년 5월에 익산시 사회복지공무원과 사례관리사 7명으로 통합사례관리사례연구팀을 구성해 자체연구비 100만원을 들여서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조인주 교수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으며 30여 차례의 모임과 1년여 간의 작업 끝에 지난 7월 초 A4

173쪽 분량의 책으로 1천권이 출간됐다. 이 사례집은 사례관리대상자인 노인, 알코올환자 등 5개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책의 특징으로는 각 대상자별로 공공복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과 사례관리사들의 탐과 경험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 또한 기존 사례집은 지극히 이론 중심이었는데 이 책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행복을 시스템 처리과정에 맞추어 체계적이며 실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 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사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며 접근할 수 있는 공공사례관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예술의 거리 현장방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구)에서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5일 문화예술의 거리를 방문, 관련부서로부터 사업진행 현황 설명을 청취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2017년 개관한 아트센터를 거점으로 토요일상설프로그램, 주일과 함께 하는 라디오 방송, 거리 내 입점 공방 등 숨어있는 아카데미 등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지는 구역이다. 위원들은 문화예술의 거리의 경관 개선사업과 거점공간 조성사업 등의 현장과 주변 여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익산=우병희기자



기획행정위원회들은 그동안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2019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 열려

군산시가 오는 31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수험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연다. 시는 급변하는 입시 제도와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입시전문가 이승희 종로학원 대입전략연구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입시설명회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 이해와 학생부 관리방안을 알이보는 등 실질적인 대입 관련 정보

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특징 ▲수능 개선안 분석 및 대책 ▲전국 주요대학 및 지방대 수시 전략 지원 등 대학입시에 관한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을 준비했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대학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인재양성과(☎454-2582~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남성고, 학교발전기금 도내에서 최다 확보

남성고, 학교발전기금 도내에서 최다 확보. '유가증권', 도서 및 물품, '수목' 및 시설 및 재산 등이 있다. 발전기금은 학교시설 개선이나 학생

복지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고에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

도내 고교별로도 발전기금 편차는 컸다. 이처럼 각 고교·지역별로 발전기금의 차이는 지역 여건과 교육 열의, 동문회 활동, 경영능력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